

문재인 전 대통령, ‘尹정부 3년’ 작심 비판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

국회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사

“집권 세력의 낮은 세계관 등이 총체적 국정 실패 초래
개시민들의 조직된 힘 있어야 역사 반동 막을 수 있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회를 찾아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을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었다”며 작심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3년이었다.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해야 하는 나날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경기 침체와 저성장 문제, 수출 성적 악화 등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토록 경제가 어려운 데도 국가재정은 제 역할을 못했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적 적극적 역할을 회피했으며 2027년까지 60조원 이상의 추가 세수 감소가 전망되고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모든 분야에 걸친 총체적인 국정 패반은 대통령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다. 집권 세력의 낮은 이념과 낮은 세계관, 낮은 안보관과 낮은 경제관이 총체적인 국정 실패를 초래했다”며 “방심하

면 언제든 역사를 거스르는 퇴행적 시도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었다”며 “방심하면 언제든지 역사를 거스르는 퇴행적 시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늘 ‘깨어 있는 시민’(개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있어야 역사의 반동을 막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새삼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선과 관련해 “퇴행과 전진을 반복해 온 역사도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며 “국민이 선택하게 될 새 정부가 국민과 함께 훼손된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대북정책을 두고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법이다. 남북 관계는 지난 3년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대 정부의 노력과 성과는 송두리째 부정됐다”며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은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오가며 통일로 나아가자고 선

언했다. 남북 관계가 9년여의 퇴행을 뒤로하고 본궤도로 돌아왔고 판문점은 평화체제 구축을 약속하는 무대로 전환됐다”며 “그러나 그로부터 7년 지금 우리는 최악으로 치달은 남북 관계의 위기와 우발적 군사충돌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2·3 계엄을 상기해보면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웠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남북 충돌을 유도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이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그 힘으로 평화의 수레바퀴를 다시 돌려야 한다. 대결을 넘어서고 신뢰를 쌓으며 평화의 지평을 확장했던 그 역사를 반드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화 없이는 위기를 관리할 수도 평화를 만들 수도 없다. 대화를 재개하고 갈등을 재축하고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서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을 봉쇄해야 한다”며 “국회도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남북이 주도한 4.27 판문점 선언은 9.19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합의로 이어졌고 북미 정상 회담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 됐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는 그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 민주당은 평화의 정신을 계승해 다가올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31년 행정 경험, 고향 익산 위해 쓰겠다”

‘28일 시작’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

“중앙과 지방을 아우른 31년 행정 경험, 이제는 고향 익산을 위해 쓰겠다”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 조직 안전과 제도 정착에 핵심 역할을 해온 최병관 부지사가 오는 지방선거에서 익산시장 출마를 위해 28일 퇴임식을 열고 행정부지사직에서 사직한다.



신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실무적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본격화되면서 그는 초대 행정부지사로 중책을 맡아서 전북도정의 안정적 전환과 조직 재정비, 특별자치도 전환에 따른 제도적 공백 해소 등 ‘보이지 않는 실무’에서 묵묵히 헌신해 왔다.

특히 특별법 후속 입법과 조례 제정, 공무원 조직 개편 등의 정교한 행정 설계를 통해 특별자치도의 초석을 다지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 왔다.

최 부지사는 도정 기간 중 세계 한인 비즈니스대회 전북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기반 마련,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 재추진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조직 구성원을 다독이며 밤을 새우며 일하고 물밑 조율에도 적극 앞장섰다.

특히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에서 그는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과 직접 협의하며 전북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전주 하계올림픽 개최지 유치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충남 전남 광주 대구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북 유치를 힘을 보태는 후원 멘트를 받기 위하여 각 지역 부지사와 긴밀히 소통해 협조를 통해 발표 전일까지 겨우 받았는데 이 일을 위해 애썼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여러 지역의 광역 지방자치 단체장의 간절한 호소가 올림픽 개최지 선정에 있어 각력 서울을 제치고 전북으로 유치되도록 투표권자의 마음을 흔드는 결정적 요인

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익산시장 출마를 앞두고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이제는 중앙정부와 전북도청에서 쌓은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오롯이 고향 익산에 돌려드리고 싶다”며 “행정은 익숙하지만, 정치라는 새로운 길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행정부지사는 중앙에 있을 때도 전북 뒤편 행거기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보기 위해 수시로 익산과 서울을 오가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익산은 전북의 심장이다. 그러나 여전히 인구 유출과 산업 정체, 구도심 쇠퇴라는 중대한 위기 앞에 있다”며 “누군가는 익산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조율해 온 행정의 힘으로 이를 풀어나갈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보여주기식 정치보다 실용과 책임,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한 행정을 지향해 왔다”며 “깨끗하고 실력 있는 일꾼, 겸손하게 일하는 시장이 되어 시민 곁에서 희망의 익산, 젊은 익산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의 출마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내 익산시장 후보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 행정을 모두 경험한 ‘실무형 후보’의 등장이 기존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한편, 익산시는 현재 인구 26만 7천여 명 규모의 중견 도시로, 스마트농생업 산업단지 조성, 도시재생 뉴딜 사업, 철도 교통 중심지로의 위상 강화 등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가 퇴직 후 이러한 익산시의 지역 발전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 비전과 실행력이 본격적인 선거전에서 검증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청렴 실천 서약·수출기업 보증지원 추진”

이번주 도정 주요 일정 발표

전북특별자치도가 28일부터 5월 2일까지 도정 주요 일정과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김철태 전북특별자치도 대변인은 25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28일부터 5월 2일까지 금 가꾸기 사업 추진, 노조와 함께하는 청렴 실천 공동 서약식, 수출기업 200억원 규모 보증지원 추진,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올림픽 불업 조성을 위한 민간 기록물 수집 공모전 등 굵직한 일정들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먼저, 28일에는 2025년 금 가꾸기 사업이 추진되며 사업비 242억원(국비 121억 포함)으로 정채 숲 및 공공산림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에는 노조와 함께하는 청렴 실천 공동 서약식이 열린다. 청렴 전북 실현을 위한 반부패 법령 준수 등 다짐 서약을 김관영 도지사와 노조 위원장, 직급별 대표 14명이 참석하여 열게 된다.

29일에는 간설정책과에서 요즈음 각지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문제와 관련해 선제적 지반 탐사를 통한 지반침하 사전 예방 및 지하 안전 관리에 대한 브리핑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김철태 전북특별자치도 대변인이 지난 25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30일에는 수출기업 보증지원 정책이 발표된다. 도는 업체당 최대 800만 원, 총 200억 원 규모의 보증 비용을 지원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5월 1일 오후 4시, 창원에서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열린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며, 전북자치도는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대표로 참석한다.

이 외에도 5월 1일부터 ‘올림픽 불업 조성을 위한 민간 기록물 수집 공모전’이 시작된다. 공모 주제는 ‘그때 그 시절 체육 행사 기록’이며, 7월 4일

까지 체육 관련 모든 기록물 자료를 도민들로부터 접수받아 디지털화, 홈페이지 공개와 함께 수집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북자치도는 청년단체와 농가가 참여하는 공익직불금 민간 협약 체결, 녹색 자금으로 무장에 나눔 길 조성 사업, 지역 농협 자금 활용 방안으로 장학금 및 체육 지원 사업 논의 등 다양한 현안도 함께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도정 소식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 열 것”

민주 서미화 의원, 전북 찾아 당 장애인 정책 현안 청취 등 나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장인 서미화 국회의원이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장애인 정책 현안 청취와 홍보를 위해 지난 25일 전북을 찾았다.

서 의원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장애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장애인과 가족의 기본권 보장은 이번 대선의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차기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권 보장,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 교육·노동·주거·문화 등 전 분야에서 장애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특히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날이 세계 장애인의 날과 겹쳤던 점을 언급하며, 당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광장을 지킨 시민들과 장애인 단체의 노력을

기렸다.

그는 “장애인의 민주주의는 곧 시민 모두의 민주주의”라는 점을 역설하며, 대선을 통한 정치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을 발의하고, 장애인 확대 근절과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 의원은 “전북도민과 당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전북 방문은 충청과 영남권에 이어 진행 중인 호남권 경선 일정의 일환으로, 서 의원은 지난 26일 광주에서 열리는 합동연설회에도 참석했다.

/이만호 기자

이숙자 남원시의원, 지방의원부문 주민생활편의 확대 분야

2025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장려상’ 수상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이 최근 열린 ‘2025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지방의원부문 주민생활편의 확대 분야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숙자 의원은 제9대 의회 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남원시 전반기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목받아 왔다.

특히 이 의원은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했으며,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는 물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과 신뢰 형성에도 앞장섰

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숙자 의원은 “이번 수상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